

# 경기도, 올 공공건축물건립 32곳 추진... 3314억 투입

공사 진행 17곳, 나머지 연내 준공  
유기농복합센터 12월 준공 예정  
민간전문가 함께 안전·품질 제고



2023년 추진중인 경기도 유기농복합센터.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3314억 원을 투입해 32곳을 추진하고, 이 중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등 15곳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사업 32곳은 ▲공사가 진행 중인 에코팜랜드 승용마단지(화성),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광주),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기숙사, 경기도먹거리광장(수원), 군포소방서안전체험관, 119안전센터 등 17곳과 ▲설계 중인 경기도유기농복합센터(광주), 아프

리카폐지열병정밀검사시설(양주), 통일플러스센터(의정부) 등 15곳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남한산성역

사문화관은 2014년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방향으로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

에 연 면적 2963㎡ 규모로 240억 원을 들여 2021년 12월 착공했다. 2022년 말 기준 착공률은 20.5%로 올해 8월 준공 목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광주시 근지암읍 일대 5250㎡에 165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동부소방서도 화성시 영천동 일대 5160㎡ 규모로 214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현재 설계 단계로 오는 7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될 전망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사업 추진과

정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건설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자문을 통해 안전 및 품질관리에 힘을 쏟았다. 특히 건설안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동절기(1월), 해빙기(3월), 풍수해 및 폭염(6~7월)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점검을 정례화해 현장 대응 체계를 사전에 완비하고, 공사관계자간 현장 안전소통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사업 42곳(총 사업비 3323억 원)을 추진했으며, 이 중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양주), 성남소방서, 소방학교 후생관(용인) 등 18곳을 완료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metroseoul.co.kr

## '메타버스 서울'서 오세훈 시장 만난다

서울시 '메타버스 서울' 청사진  
서울광장·시민참여 공모전 등 조성  
시장실에선 자유롭게 소통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의 16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열린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세계 도시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1단계로 경제·교육·세무·행정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유·동행·연결을 핵심 가치로 '메타버스 서울'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상담·교육 등 행정 서비스를 담았다.

우선 시는 메타버스 서울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책 읽는 서울광장, 시민 참여 공모전, 메타버스 시장실을 조성했다.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에서 발간한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다. 시민참여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에 공개된 저작도구를 이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우수 작품은 공모전 가상공간에 전시된다.

메타버스 시장실은 실제 공간을 가상 공간에 재현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오세훈 시장과 인사를 나눌 수 있다. 또 시민들은 의견 제언함을 통해 시정 비전을 제시한 후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핀테크랩, 기업지원센터, 서울 10대

관광명소도 메타버스 서울에 구현됐다. 핀테크랩에서는 82개 입주 기업의 홍보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기업 대표 면담도 가능하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경영·창업·법률·인사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 회의가 가능하다.

방문객은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로 선정된 10대 관광명소인 청와대, 롯데타워, N타워, 덕수궁, 경복궁, 북한촌옥마을,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서울숲, 한강, 광화문 광장을 메타버스 서울

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민 소통 채널로는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 120만원 채팅상담, 택스퀘어가 마련됐다. 멘토링 상담실에서는 대면 상담에 부담을 가졌던 청소년들이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상담사와 만나 고민을 나눌 수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120만원 채팅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7종의 행정 서류 발급을 안내한다. 택스퀘어에서는 챗봇을 통한 세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올해 2단계 사업으로 메타버스 시민 안전 체험관, 부동산 계약, 외국인 지원사업, 청년 정책 콘텐츠 발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메타버스 서울"은 뉴노멀 시대에 '시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이 직접 창작하고 즐기는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체험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4250명 선발

공공형 2000명, 민간형 2250명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250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제공해 취업을 돕는 공공일자리사업이다. 뉴딜일자리사업은 공공형(2000명 모집)과 민간형(2250명 모집)으로 나뉜다.

공공형 참여자는 약자동행형, 경력형성형 분야에서 1년간(최대 18개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157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시는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총 160시간의 맞춤형 교육과 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약자동행형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고, 경력형성형은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다.

시는 이달 16~20일 공공형 뉴딜일자리 사업 181개 중 152개 사업에서 976명

을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다음달까지 참여자를 개별 모집한다.

민간형은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 ▲민간 협회·단체 협력형 사업 총 2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은 회원 기업을 50개 이상(신성장 협회는 20개 이상) 보유한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청년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참여자 교육(1~3개월)과 인턴십(3개월)을 연계한다. 특히 시는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협회·단체 협력형 사업은 복지·문화예술·콘텐츠·디자인·관광·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협회(단체)를 선정, 참여자 교육(최대 1개월)과 인턴십(최대 8개월)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민간형은 사업 수행기관 접수·선정을 거쳐 올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설 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000억 발행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30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 (자치구)을 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8~19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치구별로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동시 접속자수를 최대한 분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

획이다.

강북구·광진구를 포함 13개 자치구는 이달 18일에, 중구·강동구 등 12개 자치구는 오는 19일에 구매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를 비롯한 5개 구매·결제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70만원까지

살 수 있다.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취소가 가능하다.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보유 한도 내에서 상품권 선물하기도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17일 (화)  
음력: 12월 26일

수도권 날씨  
-7 ~ 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2/0, 동두천 -11/1, 가평 -13/0, 파주 -13/-2, 서울 -7/1, 양평 -10/0, 인천 -7/1, 수원 -6/2, 용인 -6/2, 평택 -9/2, 백령도 -3/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中 언론 "미·대만 무역협상 정치쇼... 실질적 성과 없어"  
▲ 美, 네바다주 리튬 채굴에 8600억원 지원 /사진 뉴시스

▲ WSJ 설문조사 "올해 美 경기침체 확률 61%"  
▲ 조지 샌토스 논란 계속... 美 공화, '제식구 감싸기' 기류



▲ '파친코', 美 크리티크스 초이스 수상 /사진 뉴시스  
▲ "中 베이징 1월말 감염률 92% 달할 듯"